

유적지 순례 90

# 司宰正公 諱 子侯의 諸子孫

사재정공 휘 자후 제자손



△자후 묘소 : 안동시 서후면 대두서리 오동정마을 뒷산

### 司宰正公 諱 子侯

북야공파 15세 기파조(岐派祖)이며 사재정공(司宰正公)이다. 증조 휘 윤평(允平)은 추밀원부사 상서좌복야(樞密院副使 尙書左僕射)로 추증되었고 조부는 중문지후(中門祗候)를 지낸 중(重)이며 부는 밀직부사(密直副使) 인숙(仁叔)이다.

묘소는 안동시 서후면 대두서리 오동정 뒷산에 있다. 장자는 오동정(梧桐亭) 안세(安世), 차자는 녹사인 명세(名世), 3자는 용궁현감을 지낸 영세(英世)를 두었다. 영세(英世)의 아들 임(任)은 형령으로 성종 5년 식년시 병과급제하여 성종 11년, 12년 사헌부 지평으로 경연(經筵)에 참여하였다.

### 오동정(梧桐亭) 안세(安世)

안동시 풍산읍 회천리에서 출생하여 세종 27년 문과급제하였다. 세종 29년 대사간이 되고 세조 3년 좌익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성종 11년 실록에 권안세가 사서오경(四書五經)에 통하니 세종이 탁용(擢用)하였다 하였으며 성종 20년 실록에 세종조에 고령으로 급제하여 상전(賞典)을 받았다 하였다.

세조 14년 풍산 고함으로 와 오동정을 짓고 경적을 강론하였다. 유시가 있고 교리 이만규가 행장을 지었다. 묘소는 안동시 풍산읍 죽전리 산2번지 호음암에 있다.

아들은 경동(敬守) 별시위, 석동(碩全) 호군(護軍), 의동(義全) 군수(郡守)이다.

석동(碩全)의 아들 18세 세신(世臣)은 풍산에서 출생하여 관직은 장사랑이고 묘소는 풍산읍 상리 산4번지에 있다. 세신(世臣)은 교수(教授) 구(壽), 훈도(訓導) 기(耆), 교수(教授) 질(耆)을 두었으며 구(壽)의 손자는 21세 풍악공(豊岳公) 순(詢)이다.

### 19세 질(耆)

풍산의 회천리에서 출생하고 교수(教授)를 지냈다. 백중형과 함께 부모상에 여묘하고 예를 다하니 사림들이 그의 애취(哀毀)함을 감동하여 권상정이라 써서 걸어주니 곧 마을 이름이 되었다.



△질묘소 : 안동시 풍산읍 상리 37번지 민동곡

묘소는 안동시 풍산읍 상리에 있다.

### 21세 풍악공(豊岳公) 순(詢)

부친은 경기(景紀)이고 호는 풍악이며 부친상에 애취(哀毀)하고 입진왜란에 모친을 암혈(巖穴)에 모시고 증풍에 들자 7년간 대소변을 받아내고 사후에 날마다 성묘하니 인조 13년 조정에 알려져 마을이 정표(旌表)되고 정려(旌閭)를 받았다.

입진왜란 호국으로 영남충의단(嶺南忠義壇)에 제향되었다. 안동시 풍산읍 상리 시모길 입구 언덕에 삼강당(三綱堂)과 칠장각(七旌閣)에 모셔있다.

### 21세 매헌공(梅軒公) 눌(訥)

조부는 19세 질(耆)이고 부친은 경담(景談)이다. 공은 명종 2년 풍산의 회천에서 출생하였다. 호는 매헌(梅軒) 또는 송죽헌(松竹軒)이고 송암 권호문(權好文)에게서 수학하여 선조 6년 식년시 진사 급제하였으나 성균관에서 명사들과 교류하는 것이 부당스럽다 하고 낙향하여 학문을 닦았다.

선조 25년 입진왜란이 일자 임하(臨河)에서 의병을 일으켜 안동부 풍족을 관장하였으며 아들 우직을 공산으로 보내 회맹(會盟)에 참석케 하였다. 왜란이 끝나자 와룡산(臥龍山)이라 정사(精舍)를 짓고 후학을 길렀다.

묘소는 풍산읍 상리 산 37번지 민동곡 조고 질(耆) 후복에 있다. 경농(經農) 권중현(權重顯)이 행장을 짓고 서과 유필영이 비문을 지었다. 아들은 우직(友直)과 우량(友亮), 우문(友文)을 두었다.

22세 우직(友直)은 선조 4년 외룡 가야리에서 출생하여 유일재 김언기의 문인으로 입난에 부친을 찾아 장의(倡義)하여 화왕산 객재 우의 진영에 가 싸웠다. 호는 화산(花岑)이고 화산일고를 남겼으며 권상익이 행장을 지었다.

영남충의단(嶺南忠義壇)에 제향되었다. 묘소는 안동시 와룡면 주계리 산 23번지 방곡에 있고 가산 김형모가 비문을 지었다.

(감수 : 사재정공계 관상철 편술 현봉 권경석)



△칠장각(七旌閣) : 안동시 풍산읍 상리 시모길 입구



△삼강당(三綱堂) : 안동시 풍산읍 상리 시모길 입구



△눌 묘소 : 풍산읍 상리 산 37번지

## 석우공(石愚公) 재두(載斗)와 송산공(松山公) 재규(載奎)



△석동정사 :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교동

### 서주공(西州公) 장환(章煥)

공은 우천공(愚川公) 극유(克有)의 9대종손으로 선고는 병천(秉天)이며 순조 30년 단성 강누리에서 출생하여 일생동안 우암(尤庵)을 흠모하고 고종 26년 60세에 학행으로 추천받아 통사랑 수봉관에 제수되었다. 문집을 남겼으며 묘소는 단성면 교동에 있다. 아들 재두가 행장을 지었으며 최익현이 비문을 지었다.

### 석우공(石愚公) 재두(載斗)

석우공은 우천공(愚川公) 극유(克有)의 10대종손으로 서주(西州) 장환(章煥)의 장자로 철종 2년 단성 강누리에서 태어났다. 호는 석우(石愚)이다. 공은 우암(尤庵)의 학문을 따르는 것이 가학(家學)임을 강조하면서 뛰어난 학행으로 아우 재규(載奎)와 더불어 명성을 날렸으나 잠손으로 집안을 일으키기에 힘썼으며 사후에는 아들 봉현(鳳鉉)이 대신하였다. 산청군 단성면 교동에 석동정사(石東精舍)가 있으며 문집을 남겼다. 묘소는 교동 선영에 있다. 권윤환이 행장을 짓고 기우만이 비문을 지었다.

강누리는 우천공이 들어와 터전을 잡고 스스로 어리석다고 하여 호를 우천으로 정하고 후학을 기른 우천정사가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우암 송시열이 귀양살이에서 풀려나 이곳을 지나다 강성벽을 보고 남명(南冥)의 시구에서 따온 적벽이란 글자를 강벽에 썼다고 하여 이곳을 적벽이라 불리기도 한다. 번암 채재공은 단성에 지내면서 단구록(丹丘錄)을 남겼다.

1889년 서주공 장환(章煥)이 월고 등과 맺어지던 모습이 시에 보이고 1901년 노사집 중간(重刊)을 위해 신안정사(新安精舍)에 모인 이후 영호남 유림들이 뱃놀이한 모습이 있다. 이처럼 강누리는 안동권씨와 성주이씨가 노론의 주요 거점인 신안정사 건립을 주도하면서 명사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다.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된 뒤 석우공(石愚公)은 아우 재규(載奎)가 정재규의 의병모집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정재규에게 편지를 보내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인곡서당 전경

### 송산공(松山公) 재규(載奎)

서주공(西州公) 장환(章煥)의 둘째 아들로 고종 7년 단성 강누리 교동에서 태어났다. 호는 송산(松山)이고 노백헌(老柏軒) 정재규(鄭載圭)의 문인으로 경학(經學)에 정진하였다. 뛰어난 문장과 학행은 서부영남의 거유(巨儒)로서 일세의 추앙을 받았다. 수많은 시문과 금석문(金石文)을 남기고 후학을 길러 학맥을 이었다.

그러나 송산공(松山公)은 을사조약 이후 신학교가 생겨 구학 서당이 학생수가 줄고 황폐화되어감을 한탄하면서 머리를 기르고 옛 복장을 하지 않으면 배운은 거짓되고 실심(實心)이 아니라고 하였다. 19세기 후반 경상 우도 지역은 많은 유학자들이 배척되었으며 노사(盧沙) 기정진(奇正鎭)의 학풍이 유행하였다. 이중에 핵심적 인물인 송산공(松山公)이다. 노론(老論) 기정진의 문인은 남명 조식의 후손과 삼양 권준(權濬)의 후손이 단성에서 세를 이루었으니 이들 단성, 산청 등 노사학과(盧沙學派) 인물들은 주희(朱熹)와 송시열의 영정을 모신 신안정사인 이곳을 강학처로 자주 회합을 하였다.

재규의 호는 송산(松山) 또는 이당(而堂)이다. 공은 권윤환, 이도복, 한유 등과 노사학을 심화시키고 성(性)의 이일분수(理一分殊) 전개양상과 이기(理氣)설을 활발히 토론하였다.

공은 1914년부터 강학활동에 전념하여 많은 문도를 배출하였다. 그 명성을 듣고 찾아온 학생들이 많았으며 몸가짐이 바를뿐만 아니라 학문이 깊어 문도들이 넘치자 1915년 소천정(昭泉亭)을 짓고 1934년에는 다시 인곡서당(仁谷書堂)을 건립하여 천여명에 달하는 많은 문인들을 배출하니 일대 뿐만 아니라 멀리 함천, 진주, 하동, 호남 등에서 찾아왔다.

또한 공은 위정척사사상(衛正斥邪思想)을 철저히 실천하였으며 일제치하에 일제 정책을 따르지 않고 공맹(孔孟)과 정주(程朱)의 도를 우선하였다. 1952년 83세로 졸하니 묘소는 단성 신인의 신안정사 뒤 조부모 아래에 있다. 유교로 송산집 23권을 남기고 사림과 후학이 경현사(景賢祠)를 세우고 제향을 받들고 있으며 영정이 모셔있다.

(자료검토 : 인곡서당 內任 權載炯 기사 : 현봉 권경석)



△이당선생 송모비



△이당 묘소 : 산청군 단성면 신안정사 후산



△이당선생과 제자들 : 1930년 신안정사에서



△인곡서당 경현사